

管山城 戰鬪의 樣相과 影響*

梁 起 錫**

-
- I. 머리말
 - II. 백제의 신라 공격 준비
 - III. 백제의 관산성 공격과 패전
 - IV. 관산성 전투의 영향
 - V. 맺음말
-

I. 머리말

管山城 전투는 554년 백제가 지금의 충북 옥천지역인 신라의 管山城¹⁾을 공격하다가 큰 패배를 당한 싸움이다. 이 전투에서 백제의 聖王은 신라군에 의해 사로잡혀 전사하였고, 그의 아들 餘昌[威德王]은 신라군의 포위망을 간신히 빠져 나왔으며, 佐平 4명을 비롯한 3만에 가까운 백제와 가야 및 왜 연합군 병사들이 참살을 당한 것이다. 이 전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전쟁 당사국인 백제와 신라 양국뿐 아니라 고구려·가야·일본열도의 왜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삼국의 항쟁과정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관산성 전투는 신라가 553년 백제로부터 한강하류 유역을 탈취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백제와 신라 양국은 ‘悉發國中兵’²⁾이라 할 정도로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제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백제는 한동안 고구려의 남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유지되어 오던 백제와 신라간의 동맹체제도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백제는 이 전투의 패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지배세력간에 심한 내부적 갈등을 겪게 되었다. 반면 한강유역을 확보한 신라는 대가야마저 영유함으로써 삼국의 항쟁과정에서의 우위를 점하며 장차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8)”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1) 管山城은 옥천지역으로 ‘古尸山郡’(『三國史記』 지리지), ‘古利山’(같은책 김유신 열전 하)으로, ‘函山’(『일본서기』 권19 흥명기 15년)으로 각각 나온다. 현재 군북면 환평리의 ‘環山’(581m)이 옥천지역의 옛 명칭인 고리(管)라는 훈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서기』 권19 흥명기 15년 동12월.

지금까지 관산성 전투에 관한 연구는 복잡다단한 양상을 보이는 550년대 전반의 삼국의 역관계 추이와 관련하여 신라나 가야사의 입장에서 그 전투의 양상과 성격을 구명하거나, 또는 사비시대 정치사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백제 지배세력의 교체 차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온축해 왔다.³⁾

그러나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산성 전투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해야 할 여지가 많다. 관련 기록이 백제측 입장과 신라측 입장으로 나뉘어 서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소략하거나 또는 사건 과정을 포괄적으로 압축해서 서술된 부분이 있어⁴⁾ 이 전투 과정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관련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관산성 전투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전개 양상과 영향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공취에 따른 백제의 대응 방식과 대신라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며, 이어 관산성 전투의 전개 과정을 그 성격상 3시기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전쟁 상황의 변화상을 고찰할 것이며, 끝으로 이 전투가 한국 고대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II. 백제의 신라 공격 준비

관산성 전투는 553년 신라가 백제로부터 한강하류유역을 공취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에 앞서 551년 백제는 동맹세력인 신라, 가야와 함께 북진을 단행하여 성왕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강하류 유역의 실지 수복작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⁵⁾ 이는 고구려가 당시 왕위계승에 따른 내분과, 서북쪽 방면에서의 신흥 돌궐의 군사적 압력이라는 내외외환의 위기⁶⁾에 편

3) 관산성 전투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병도, 「진흥대왕의 위업」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668~684쪽.

노태돈,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2, 1976.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이희진, 『가야정치사연구』, 학연문화사, 1998.

김갑동, 「신라와 백제의 관산성 전투」 『백산학보』 52, 1999, 189~214쪽.

김주성,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백제연구총서7), 서경문화사, 2000, 295~321쪽.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동방사논총』 11, 2006, 7~64쪽.

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동방사논총』 11, 2006, 117~171쪽.

김영심, 「관산성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대가야 학술총서5), 고령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225~274쪽.

4)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32년 7월조에는 당사국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고, 같은책 신라본기 진흥왕 15년 7월조에는 소략하기는 하지만 백제본기 기사보다 비교적 상세하며 신라측 입장에서 정리된 기록이다. 반면 『일본서기』 흠명기 15년 12월조 기사는 『삼국사기』 기록보다는 상세하며 백제측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일본서기』 기록은 관산성 전투의 시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압축해 서술한 면이 있어 이를 활용할 때에는 면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5) 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2년, 같은책, 열전 거칠부 辛未, 같은책, 고구려본기 양원왕 7년,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2년조 기사를 참조할 것.

승한 결과에서였다. 백제가 한강고토를 수복한 551년 이후 삼국이 한강유역의 확보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함에 따라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공취 사건이 관산성 전투와 직접 관련이 있음이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A-① 7월 신라가 동북 변경을 취하고 新州를 설치하였다. 10월에 왕녀를 신라에 보냈다.(『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31년, 553)

② 7월 백제의 동북지방을 취하여 新州를 설치하고 阿漚 武力으로 軍主를 삼았다. 10월에 백제 왕녀를 취하여 小妃로 삼았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4년, 553)

③ 이해 백제가 漢城과 平壤을 버렸다. 신라가 이로 말미암아 한성에 들어가 살았다. 지금 신라의 牛頭方 · 尼彌方이다[지명은 자세하지 않다].(『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 552)

위의 기사들은 신라가 백제의 동북 변경의 땅을 공취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가 백제의 동북 지방을 공취한 시기는 『삼국사기』 기사(A-①,②)와 『일본서기』 기사(A-③)와는 1년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어느 것이 사실에 합당한지는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 기사에 의거하여 553년으로 취신하고 싶다. 그리고 신라가 공취한 지역이 『삼국사기』 기사에는 백제의 동북 지역으로 막연히 기술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성지역이라고 기술한 『일본서기』 기사가 보다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신라는 551년 백제가 북진을 하여 고구려가 영유하고 있었던 한성과 평양지역인 6군의 땅 중에서 한강하류유역인 한성 일대의 땅을 공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 신라는 551년 한성고토 수복 후 아직 불안정한 영유 상태에 있던 백제의 한강하류일대를 공취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중요한 대책으로 고구려와의 밀약 체결을 성공한 것이다.⁸⁾ 당시 내우외환에 직면한 고구려는 백제의 동맹관계에 있는 신라를 이탈시켜 백제의 전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신라는 장차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될 한강유역의 전략적 가치에 보다 주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와 신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양국 간에 밀약을 성공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는 백제로부터 공취

6) 노태돈, 앞 글, 31~54쪽.

7) 551년 나제동맹군의 북진과 552~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에 관한 기록은 사건 전개의 시간이나 지명 등에 대하여 많은 錯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주성,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297~307쪽). 551년 북진의 주동 역할을 한 백제측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일본서기』 흠명기에 백제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본기에는 居柒夫와 惠亮의 관계나 竹嶺 바깥 高峴 이내의 10군을 공취한 사실 등 주로 신라측 입장이 반영된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사료 비판을 통한 한강유역의 확보과정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거칠부전에 의하면 신라가 한성만 점령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본서기』 권19, 흠명 13년 기사에서 평양이 제외된 것은 고구려와의 밀약에 의해 고구려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남평양지역이 왕도 평양성과 지근한 거리에 있어 백제의 침입을 공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한성은 牛頭方·尼彌方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인 지명을 명기하고 있다. 우두방은 황해도 우봉으로, 니미방은 경기도 과주 임진현이나 임강현으로 비정되기 때문에(김현구 외,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 일지사, 2003, 257~258쪽) 이곳은 신라시대의 북한산주에 해당한다. 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으로 백제는 고토회복의 염원을 실현하지 못한 채 한강 이남지역으로 퇴축되기에 이른다.

8) 고구려와 신라간에 밀약이 성립된 사실은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흥왕, 『구당서』 권199 열전149동이 고려, 『일본서기』 권19, 흠명 13년 5월조 기사를 참조할 것.

한 한강하류유역에 新州를 설치하고 阿淦 武力을 軍主로 삼아 영역화의 길에 착수한 것이다.

어쨌든 553년 신라의 한강하류일대 공취 사실은 551년 백제가 신라, 가야와 함께 동맹을 맺어 고구려가 영유한 한강유역을 공취한 일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일로 인해 그동안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되었던 백제와 신라간의 동맹관계가 사실상 해체되었고 삼국관계에서 신라·고구려의 동맹 구축에 대한 백제의 고립이라는 새로운 대결 구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신라의 배신으로 한성고토를 상실한 백제는 그 보복의 일환으로 신라와의 전면전을 결단할 만큼의 강경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백제는 당시 국력 수준으로 비추어 보아 백제 단독으로 신라와 고구려의 동맹세력에 대해 동시에 전면전과 같은 강경책을 취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551년 북진 때에 백제가 신라, 가야 동맹세력과 함께 공동 작전을 전개한 사례가 참고 된다. 따라서 백제는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면전과 같은 즉각적인 강경책보다는 온건한 외교책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상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백제는 여러 수단을 써서라도 신라를 설득하여 551년처럼 동맹관계로 복귀시키는 일이 삼국간의 세력 균형 유지에도 필요할 뿐 아니라 그가 추구하던 고토회복을 통한 근초고·근구수왕대의 백제의 광영을 재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따라서 백제는 신라에게 기습적으로 한강하류일대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와의 동맹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게 되었다. 비록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교육책의 하나로 성왕의 딸을 진흥왕의 小妃로 출가시킬 것을 제의하였다(A-②). 신라는 이러한 백제측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백제와의 불필요한 대립의식을 촉발시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⁹⁾ 이러한 혼인 관계를 통한 신뢰 구축 방법은 백제의 대외 활동에서 자주 등장하는 현상이다. 이는 東城王이 신라 伊淦의 딸과 혼인을 맺어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사례에서 찾아진다.¹⁰⁾ 이러한 백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백제와 신라 양국이 더욱 악화되어 간 것을 감안해 보면 신라 왕실과의 혼인 정책은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는 이러한 대신라 외교적 유화책 이외에 함께 추진된 시책이 기존의 가야, 왜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었다. 백제는 신라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가야와 왜의 정치적·군사적 도움이 절대 필요하였다. 신라는 이미 고구려와 밀약을 맺어 사실상 고구려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백제가 가야와 왜에 대한 협력 관계 내지는 지원 요청을 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김영삼, 앞 글, 250쪽. 이에 대해 백제가 신라로부터 한강 하류지역을 반환받기 위한 苦肉策에서 나온 조처나(金秉柱, 「羅濟同盟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46, 1984, 37~39쪽), 백제가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라의 한강하류지역 점령에도 불구하고 신라와의 동맹을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하나로 보는 견해(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 1981, 84쪽), 그리고 신라 왕실로부터 관산성 전투에 대비한 고급 정보를 캐내려는 의도로 보는 견해(김주성, 「관산성전투의 배경」 『중원문화연구소학술회의 발표요지』, 2008 참조) 등이 있다. 반면 신라와 仇讐 관계에 놓이게 된 이때에 두 왕실간에 혼인이 맺어졌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1977, 408쪽).

10)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 15년 춘3월 및 신라본기 炤知마립간 15년.

B-① 5월 戊辰朔 乙亥 백제 · 加羅 · 安羅가 中部 德率 木荔今敦과 河内部 阿斯比 多 등을 보내어 “고구려와 신라가 화친하고 세력을 합쳐 신의 나라와 임나를 멸하려고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구원병을 청해 먼저 불시에 공격을 하 고자 합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은 천황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뢰었 다. 이에 조칙을 내려 지금 백제왕 · 안라왕 · 가라왕과 일본부의 신들이 사신 을 보내 아뢴 것을 다 들었다. -- (하략) --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 552)

② 정월 甲子朔 乙亥 백제가 上部 德率 科野次酒와 杆率 禮塞敦 등을 보내 군 병을 요청하였다. (같은책, 흠명기 14년, 553)

③ 8월 辛卯朔 丁酉 백제가 上部 柰率 科野新羅와 下部 固德 汶休帶山 등을 보 내 표 를 올려, “ -- (전략) -- 올해 문득 들으니 신라가 狛國[고구려]과 함 께 모의하여 “백제와 任那가 자주 일본에 나아갔다. 생각건대 군사를 빌려 우 리나라를 치려는 듯하다. 이 일이 만약 사실이라면 나라의 패망은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일본의 군대가 떠나기 전에 안라를 공격해 빼앗아 일본과의 통로를 끊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 (후략). (『같은책』, 흠명기 14년, 553)

④ 정월 丙申 백제가 中部 木荔 施德 文次와 前部 施德 曰佐分屋 등을 筑紫에 보내 丙臣과 佐伯連 등에게 묻기를, -- (하략). (『같은책』, 흠명기 15년, 554)

⑤ 2월 백제가 下部 杆率 將軍 三貴와 上部 柰率 物部烏 등을 보내 구원병을 청하였다. -- (하략). (『같은책』, 흠명기 15년, 554)

위 기사들은 『일본서기』 흠명기 13년(552)~15년(554)에 걸쳐 백제가 왜에 원병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들은 『일본서기』 사관에 의한 상투적인 표현을 제외하고는 553년 백제의 한강유역 상실 직후 백제의 대외 청병 외교 현황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백제는 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탈취 전후로 하여 554년 관산성 전투가 일어날 때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왜에 원병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제가 왜에 원병을 요청한 목적은 사료 B-①에 나타나듯이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 백제와 가야제국을 멸망시키려 한다는 우려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는 백제가 대가야[가라]와 안라가 공동으로 왜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야세력이 이미 백제의 동맹세력의 일원이 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552년 5월 단계(B-①)에는 이미 백제와 가야, 왜 간에 동맹 관계가 구축되어 신라와 고구려의 동맹세력에 대한 긴박한 대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백제가 왜에 대해 신라와 고구려에 의한 일련의 긴장 관계에 대비하여 단지 원병만을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외교 활동에 국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52년 5월 제1차 청병 요청 때에 대해서는 왜에서 “임나와 같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하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¹¹⁾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반응을 보였을 뿐이었다. 이 해 10월에는 백제가 왜에 원병 요

11)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 5월.

청을 한데 이어 불교를 전해 주었다.¹²⁾ 이는 제1차 청병에 대한 보상책의 일환으로 왜의 고대 중앙집권국가 확립에 필요한 이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백제는 553년 정월 제2차 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上部 德率 科野次酒와 杆率 禮塞敦 등이 왜에 파견하였다(B-②). 이때는 제1차 청병사로 갔던 中部 德率 木荔今敦과 河內部 阿斯比多 등이 아직 귀국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제1차 청병사가 파견된 직후 신라에 의한 한강유역 탈취와 같은 급박한 상황 변화에 따라 백제가 잇달아 왜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백제의 원병 요청에 대해 왜에서는 內臣을 백제에 보내 군원물자인 良馬 2필, 同船 2척, 활 50張, 화살 50具을 포함한 군수 물자 제공과 함께 군사 파견도 약속하였다.¹³⁾ 왜는 그 대신 백제의 醫博士·易博士·曆博士의 교체를 비롯하여 卜書·曆本과 여러 가지 약물들을 함께 요청하였다. 이어 553년 8월에는 백제가 제3차 청병사로 上部 奈率 科野新羅와 下部 固德 汶休帶山 등을 왜에 파견하였는데(B-③), 신라와 고구려가 공모하여 백제가 위협에 처해 있음을 급박하게 알리고 있다. 관산성 전투가 임박한 급박한 시점에 약속한 왜군의 파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554년 2월에는 백제가 中部 木荔 施德 汶次와 前部 施德 曰佐分屋 등을 왜에 보내 제2차 청병사가 파견되었을 때 왜가 약속한 파병을 촉구하는 요청을 하고 있다(B-④). 이에 왜는 원병 1천 명, 말 1백 필, 배 40척을 즉시 보낼 것을 약속하여 구체적인 대백제 지원 규모를 밝혔다. 554년 2월에는 제5차 청병사가 왜에 파견되었는데(B-⑤), 왜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파병을 즉시 실천에 옮길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왜는 그 반대 급부로 德率 東城子莫古와 固德 馬丁安 등 오경박사 등의 교체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백제의 지속적인 왜 청병 외교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어 554년 5월에 왜가 마침내 백제에 출병하게 되었다.¹⁴⁾ 이때 백제에 파견된 왜의 병력은 內臣이 筑紫에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 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백제가 신라와 고구려의 동맹, 그리고 신라의 한강유역 탈취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접하여 가야제국과 함께 왜에 지속적으로 청병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의 5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청병 요청에 대해 왜가 백제에 제공한 군사적 조치는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제2차 청병때 良馬 2필, 同船 2척, 활 50張, 화살 50具를 내용으로 하는 군수 물자의 지원과 554년 5월에 병력 1천 명, 말 1백 필, 배 40척이 왜가 백제에 제공한 군사 원조 내용의 전부라 할 수 있다. 4세기말~5세기초에 한반도에 대규모로 파병된 왜병의 규모에 비해 훨씬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병이 출병할 경우 백제에서 병사의 의복과 식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⁵⁾ 둘째, 백제가 왜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댓가로 선진 문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가 백제에 지원한 것은 말·배·활·화살 등 군수 물자와 1,000명에 달하는 병력 파견이었다. 반면 백제가 그 댓가로 왜

12)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 동10월.

13)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4년 6월.

14)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하5월.

15) 544년 소위 입나부흥회의에서 제시된 3책 중에 출병한 왜병에 대한 병참 지급 조건 중에서 백제가 왜병들의 의복과 식량을 지급할 것으로 언급한 점이 있다(『일본서기』 권19, 흠명기 5년 11월).

에 지원한 것은 오경박사를 비롯한 여러 지식인과 전문 기술자, 불교, 각종 서책, 그리고 약물 등 선진 문물이었다. 이것은 왜가 야마토정권을 중심으로 일본열도를 통일해 나가면서 고대국가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었다. 백제의 선진문물의 공급과 왜의 군사적 협력관계로 이루어진 백제와 왜와의 특수한 관계를 용병 관계로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¹⁶⁾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단지 문물의 授受 정도 차이에 따라 용병 관계로 설정하는 견해는 의문이 든다. 셋째 왜병의 파견이 4세기 말~5세기초에 걸쳐 백제의 원병으로 참전한 이후에 오랜만의 일이라는 점이다. 당시 왜는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났듯이 가야와 함께 백제의 원병으로 참여하여 고구려에 의해 참패를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 이후 백제가 신라에 접근하여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상황 하에서 왜가 한반도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475년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왕도 한성을 포함한 한강유역 일대를 상실할 때에도 왜의 파병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참고가 된다.

넷째, 백제가 가야·왜와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또 왜에 청병을 지속적으로 청병을 요청하는 외교 활동을 전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梁나라와의 관계는 한동안 단절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백제 성왕대에는 524년에 양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은 이후 534년, 541년, 549년에 각각 양과 교섭을 벌리면서 毛詩博士와 涅槃經·畫工·畫師 등 선진 문물 요소를 요청하여 수용¹⁷⁾한 바 있었다. 백제가 중국 남조와 긴밀한 유호관계를 유지해 온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신라의 한강유역 탈취와 동맹관계에서의 이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양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⁸⁾ 이것은 梁이 당시 侯景의 난과 같은 대내적 분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백제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점이 백제가 대외 청병외교에 집중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Ⅲ. 백제의 관산성 공격과 패전

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탈취 이후 신라의 동맹 관계에서 이탈, 고구려와의 동맹 관계 구축과 같은 백제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백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라 왕실과의 통혼 정책을 추진하여 신라를 다시 동맹체제에 복귀시키려는 유화책을 구사하였다. 이와 함께 가야와 왜를 끌어들이어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신라에 대한 유화책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유사시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외교적 포석이었다. 이런 의도에서 백제는 5차례에 걸친 청병사를 파견하여 왜에 출병을 요구해 왔다(II장 참조). 그

16) 金鉉球, 『大和政權의 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 47~55쪽.

17)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19년.

18) 백제가 대신라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실현성이 적은 직접적인 군사 파병 보다는 아마 외교적 역지력을 이용하여 신라의 동맹인 고구려의 개입을 저지하는데 있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이 남북조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472년 백제가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위해 원병을 요청하였을 때처럼 중국 왕조는 군사 파견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도움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러나 신라에 대한 유화책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되자 백제는 신라와의 전쟁 수단을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같다. 백제가 왜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병 외교를 전개한 결과 554년 5월에 왜병 1,000명이 백제에 출병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다음 달인 6월에 이르러 內臣인 有至臣의 지휘 아래 왜병이 백제에 도착하였다. 여기에다 가야제국은 당시 백제에 부용되어 있는 상황에서¹⁹⁾ 백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참전을 해야만 하는 관계에 있었다. 551년 백제의 북진 때의 경우와 같이 가야군의 참전도 예상되는 일이었다.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다. 이에 따라 백제의 신라 공격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했지만 그 결정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아니었음이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C-① 겨울 12월 백제가 下部 杆率 汶斯于奴를 보내 표를 올려 “백제왕 臣 明과 安 羅에 있는 倭臣들, 任那의 여러 나라의 倭岐들이 아뢰기를 斯羅가 무도하여 天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狛과 마음을 함께 하여 바다 북쪽의 彌移居를 멸망 시키려 합니다. 신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有至臣 등을 보내 우러러 군사를 청 해 斯羅를 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天황께서 유지신을 보내시니 군사를 乞느리고 6월에 왔습니다. 신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② 餘昌이 신라를 정벌할 것을 계획하자 耆老가 “하늘이 함께 하지 않으니 化 가 미칠까 두렵습니다.”라고 간언하였다. 여창이 “늬었구려. 어찌 겁내시오. 天황은 대국을 섬기고 있으니 어찌 겁낼 것이 있겠소”라 하고, 드디어 신라 國에 들어가 久陀牟羅에 보루를 쌓았다.(이상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554)

위 기사에서 C-①은 백제의 신라 공격 목적을 엿볼 수 있는 기사이다. 이에 의하면 백제와 가야제국이 신라를 정벌하려는 목적은 신라가 고구려와 결탁하여 백제를 포함한 가야제국까지 멸망시키려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C-①의 이러한 서술은 천황중심의 사관으로 기술된 『일본서기』의 상투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가야지역에서의 백제와 신라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대립 양상을 보인 점은 관산성 전투의 부수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탈취 문제가 간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사료 C-②는 백제 조정내에서 신라에 대한 和戰 양면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기사이다. 553년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수복한 백제의 한강 하류유역을 불시에 탈취하자 고구려와 신라에 대한 대처 방안을 놓고 백제의 지배세력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벌어졌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성왕의 아들 여창이 한강 수복을 위해 신라와의 전쟁을 계획하자 이에 대해 조정의 기로들이 반대하는 모습이 보인다. 기로들은 “하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직은 신라로부터 한강유역을 수복하기에는 여건상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 이면에는 한강하류유역 수복을 통해 왕권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성왕과 그 지지세력, 그리고 이에 맞서 귀족 중심의 정치운동을 고수하려는 일부 귀족세력들 간에 내재되어 있던 대립과 갈등이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 특히 신라에 대

19)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251쪽.

한 강경한 대응자세를 주장하고 있었던 주전파로는 성왕을 비롯하여 왕자인 餘昌, 그리고 대성귀족 중에는 木氏, 眞氏勢力 등,²⁰⁾ 그밖에 馬武²¹⁾ 등과 같은 근시관료 등을 들 수 있다.²²⁾ 성왕은 일단 유화책을 써서 신라를 포용하려 하였으나 신라의 거부로 강경책으로 선회하여 이번에 신라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성왕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근초고 · 근구수왕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려는 성왕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여창은 성왕의 元子라는 왕위계승권상의 조건 이외에 대외전쟁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왕위 계승권자로서의 정치 사회적인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에 앞서 여창은 551년 북진때에 고구려군을 百合野塞에서 싸워 이를 격퇴시킨 일이 있었고,²³⁾ 이어 신라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신라와의 싸움을 막으려고 간언하던 ‘耆老’들을 질책하면서 신라와의 전쟁을 적극 독려한 바 있었다. 554년 관산성 전투 때에는 선봉으로 출전하여 최전방 久陀牟羅塞에서 신라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여창은 성왕을 도와 신라 정벌을 앞장서서 주도한 주전론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耆老’로 표현된 세력은 ‘老而賢者’로서²⁴⁾ 당시 국왕의 자문 역할을 담당했던 원로를 뜻한다. ‘기로’들 중에서 신라와의 전쟁보다는 주화론을 주장한 대성귀족들로는 沙氏와 燕氏 세력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²⁵⁾ 이들은 금강유역에 세력 기반을 가진 귀족세력으로서 한강수복이 실현될 경우 한성으로의 재천도가 단행될 우려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²⁶⁾ ‘기로’들의 발언을 통해 볼 때 이들 세력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고구려와 신라의 두 나라에 대하여 동시에 맞설 수 없다는 현실론을 바탕으로 하여 주화론을 내세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백제가 신라 정벌에 대한 찬반 논의가 대두되었지만 결국 주전파의 주장이 관철되어 일단 신라 정벌이 결정되었다. 전황의 전개 과정을 살피기 위해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① 7월 [성]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여 친히 步騎 50을 거느리고 밤에 狗川에 이르렀는데 신라가 복병을 발하여 함께 싸우다 난병에게 시해당하여 죽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32년)

② 7월 백제왕 明穰이 加良과 함께 관산성을 來攻하자 軍主 角干 于德과 伊滄 耽知

20) 목씨와 진씨세력은 왜에 청병사로 자주 파견된 바 있고, 또한 진씨세력은 한성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강고토수복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한다(김주성, 『백제사비시대 정치사연구』, 전남대박사학위논문, 1990 참조).

21) 柰率 馬武는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1년 춘2월에, “왕(성왕)의 股肱의 신하로서 위에 아뢰고 아래에 전하는 것이 왕의 마음과 몹시 맞아서 왕의 보필이 되고 있다”라고 하였듯이 성왕대에 국왕 중심의 측근정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표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2) 양기석, 「백제 위덕왕대 왕권의 존재형태와 성격」 『백제연구』 21, 1990, 39~42쪽.

23)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4년 동10월.

24)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180~181쪽.

25) ‘耆老’에 대해서는 사씨·국씨·목씨·연씨 등 대성팔족의 귀족세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김주성, 「사비시대 백제정치사연구」, 전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119쪽), 왕권과 대성팔족을 이원화시켜 대립적인 측면으로만 볼 경우 너무 평면적이고 도식적인 이해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대성귀족들 중에는 이해관계 여하에 따라 왕권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김수태, 「백제 위덕왕의 정치와 외교」, 『한국인물사연구』 2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152~153쪽).

26) 김주성, 앞 글, 2000, 308쪽.

등이 마주 나가 싸웠으나 패하였다. 新州軍主 金武力이 州兵을 이끌고 와서 교전함에 이르렀는데 裨將 三年山郡 高干 都刀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신라군이 승승장구하여 크게 이겨 좌평 4인과 사졸 2천 9백 6 십인을 죽이니 말 한 필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같은책』 신라본기 진흥왕 15년)

③ 옛날 백제의 明穰王[성왕]이 古利山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꾀하였을 때 유신의 祖父 武力 角干이 장수가 되어 [그들을] 맞아 쳐서 승세를 타고 그 왕과 재상 네 사람 및 사졸들을 사로잡아 그 침입을 좌절시켰다. 『같은 책』 열전 김유신 하)

④ “- (전략) - 12월 9일에 斯羅를 공격하러 보냈습니다. 신이 먼저 東方領 物 部 莫奇武連을 보내 자기 方의 군사를 거느리고 函山城을 공격하도록 하였습 니다. 有至臣이 데리고 온 백성 竹斯 物部 莫奇委沙奇가 불화살을 잘 쏘았습 니다. 천황의 위령의 도움을 받아 이 달 9일 酉時에 성을 불태우고 빼앗았습 니다. 한 사람의 사신을 빨리 배를 달려가게 하여 아뢰니.”라고 하였다. 따 로 아뢰기를 “만약 신라뿐 아니라 유지신이 데리고 온 군사로도 충분할 것입 니다. 지금 狛과 斯羅가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합하였습 니다. 성공하기 어렵 습니다. 竹斯島에 있는 군사들을 빨리 보내 와서 신의 나라를 돕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나를 돕는다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신이 따로 군사 만 명을 보내 임나를 돕겠습니다. 아울러 아뢰니. 이번 일 이 매우 급합니다. 한 척의 배를 보내 아뢰니. 단지 좋은 비단 2필, 毳毼 1 령, 도끼 300구, 사로잡은 성의 백성 남자 2명과 여자 5명을 바칩니다.

⑤ [餘昌이] - (중략) - 드디어 신라국에 들어가 久陀牟羅에 보루를 쌓았다. 그 아버지 明王은 여창이 행군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한참 동안 잠자고 먹지 못했음을 걱정하였다. 아버지의 자애로움에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의 효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각하고 스스로 가서 위로하였다. 신라는 明왕이 직접 왔음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내어 길을 끊고 격파하였다.

⑥ 이때 신라에서는 佐知村의 말을 먹이는 중 苦都[다른 이름은 谷智라고도 함] 에게 “고도는 천한 중놈이요, 明왕은 이름 있는 왕이다. 지금 천한 중으로써 군왕을 죽이게 하여, 후세에 전하여져서 사람의 입에서 잊지 않게 되기를 바 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얼마 후 고도가 明왕을 붙잡아 재배하고, “왕의 머리를 베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였다. 明왕이, “왕의 머리는 중의 손에 맡길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고도가 “우리나라 법에는 맹서한 것을 어기면 국왕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중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말했다 [어느 한 책에는 “明왕이 의자에 걸터앉아 차고 있던 칼을 풀어 곡지에게 주어 베도록 하였 다”고 하였다]. 明왕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허락하여 말하기를, “과인은 매양 생각해 보건데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참고 살아왔 지만, 돌아 보건데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머리를 늘어 베임을 당하였다. 고도는 참수하여 죽인 후에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어느 한 책에는 “신라가 明왕의 두골은 수습하여 남겨 두고, 나머지 뼈를 예를 갖추 백제에 보냈다. 지금 신라왕이 明왕의 뼈를 북쪽에 있는 관청의 계단 아래에 묻었는 데 이 관청을 都堂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⑦ 여창은 포위당하자 빠져나오려 하였으나 나올 수 없었는데 사졸들은 놀라 어찌

활 바를 물랐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筑紫國造였다. 축자국조가 나아가 활을 당겨 신라의 말 탄 군졸 중 가장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을 헤아려 쏘아 떨어뜨렸다. 쏜 화살이 날카로워 타고 있던 안장의 앞뒤를 가로지른 나무를 뚫었고, 입고 있던 갑옷의 옷깃을 맞추었다. 계속 화살을 날려 비오듯하였고 더욱 힘쓰고 게을리하지 않아 포위한 군대를 활로 물리쳤다. 이로 인해 여창과 여러 장수들이 셋길로 도망하여 돌아왔다. 여창은 국조가 활로 포위한 군대를 물리친 것을 칭찬하고 높여 “鞍橋君”이라 이름하였다[鞍橋는 우리말로 구라지라 한다]. 이때 신라 장수들이 백제가 지쳤음을 모두 알고 드디어 멸망시켜 남겨두지 않으려 하였다. 한 장수가 “안된다. 일본 천황이 임나의 일 때 문에 여러 번 우리나라를 책망하였다. 하물며 다시 백제 관가를 멸망시키기를 꾀한다면 반드시 후환을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만 두었다.(이상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554) 동 12월)

위 기사들은 554년 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관산성 전투에 관한 것을 모은 것이다. 관산성 전투에 관한 기사는 아주 소략하게 전황을 서술한 『삼국사기』와는 달리 오히려 『일본서기』 흠명기 15년조 기사는 비교적 상세한 편이다. 『일본서기』 흠명기 15년조 기사는 관산성 전투의 개시, 개전 여부를 놓고 드러난 백제 내부의 갈등, 전투의 전개 과정, 그리고 성왕의 패사와 백제 연합군의 패전 등 여러 기사들을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내용 구성을 비판적으로 제구성하여 관산성 전투의 전개 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전투 개시 시점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삼국사기』 기록(D-①,②)에는 관산성 전투 개시 시점을 554년 7월로 명기되어 있는 데 반해 『일본서기』 흠명기 15년조 기사(D-④)에는 12월로 되어 있다. 어느 기사가 사실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삼국사기』 기록대로 7월에 전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싶다. 사료 C-①에서 유지신이 거느린 왜 원병이 백제에 도착한 시점이 6월인 점이나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가 여창과 鞍橋君 관련 전승 등 여러 계통의 기사를 일괄하여 압축 서술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왜의 원병이 6월부터 12월까지 백제에 장기 주둔할 경우 신라에 의해 그 정보가 노출될 수가 있고, 또한 단기간에 기습전을 감행할 경우 전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료 D-⑤에서 성왕이 오랫동안의 행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 여창을 위로하기 위해 떠났다는 기사에서 이 전투가 단기전이 아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삼국사기』 기사를 보면 그 전투의 하한 시기를 엿볼 수 있다.

E-① 承聖 3년[554] 9월에 백제 군사가 珍城을 침범해 와서 남녀 3만 9천명과 말 8천 필을 빼앗아 갔다. 이에 앞서 백제가 신라와 군사를 합쳐 고구려를 치려고 했는데, 진흥왕이 말하기를, --(중략)-- 이에 이 말이 고구려에 전해지니 고구려는 그 말에 감복하여 신라와 우호를 맺었다. 그러나 백제는 이를 원망하였으므로 [신라를] 침범하였다. (『삼국유사』 권1, 기이2 진흥왕)

② 10월에 고구려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熊川城을 침공하였으나 아군에게 패하여 돌아갔다.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위덕왕 원년, 554)

위 사료 E-①은 554년 7월 관산성 전투 직후인 9월에 백제가 신라의 珍城²⁷⁾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는 것인데 전투 시점으로 보아 성왕의 패사를 대대적으로 보복하기 위해 벌린 전투라 할 수 있다. 다음 사료 E-②는 진성전투가 벌어진 한달 후에 고구려가 백제의 熊川城을 공격한 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들에 대해 다소 기사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지만 E-①의 경우 ‘承聖 3년’이란 특정한 기년이 표기되어 있고,²⁸⁾ 또한 백제가 관산성 패전 직후에 대신라 보복 차원이나 고구려의 신라 지원 차원에서²⁹⁾ 이 기사들을 이해할 경우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이 기사들을 참조해 보면 관산성 전투는 554년 7월에 개시되어 늦어도 554년 9월 이전까지는 종전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관산성 전투는 2개월 여에 걸친 전투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투 진행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관산성 전투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볼 때 3단계로 그 전개 과정을 나누어 볼 수 있다.³⁰⁾

제1단계 전투는 554년 7월 백제가 선공으로 개전이 되어 신라의 관산성을 공함하는 시기를 말한다. 백제의 신라 정벌군의 규모는 백제가 임나를 구원하기 위해 만 명을 보내겠다는 기사(D-④)에 의거하여 백제군의 참전 병력을 만 명 정도로 추산한 견해가 있다.³¹⁾ 그러나

27) 珍城은 충남 진산으로 비정된다(三品彰英 遺撰, 『三國遺事考證』上, 塙書房, 1975, 565쪽 ;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이회문화사, 2003, 299쪽).

28) 이 전투에 대해 관산성에서 대패당한 백제가 2개월여 만에 국력이 회복되어 대규모의 보복전을 감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552년 9월이나 또는 553년 9월에 발생한 전투로 수정하여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김주성, 앞 글, 2000, 306쪽). 이 전투의 원인이 고구려와 신라가 통호한 데에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하여 553년 7월 한강하류유역을 빼앗긴 백제의 신라에 대한 보복전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따를 경우 관산성 전투를 554년 7월로 기록한 『삼국사기』 관련 기사보다 554년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한 『일본서기』 관련 기사의 신빙성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서기』에 554년 12월에 전투가 발생한 것으로 기술된 것은 전투가 끝나고 왜에 귀환한 시기를 기준으로 전투 상황을 일괄해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기록은 어느면에서 관산성 전투를 일괄하여 서술한 또다른 기록인지도 알 수 없다. 어쨌든 관산성 전투나 진성전투 모두 신라의 한강하류유역 탈취사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진성 전투를 굳이 553년으로 올려볼 근거 또한 부족한 편이다. 진성전투 기사를 신뢰하여 이를 성왕의 유해 수습문제와 관련시켜 보는 견해(김수태, 앞 글, 2004, 166~167쪽)가 어떤 면에서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이에 의하면 백제가 성왕의 유해를 돌려받기 위해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나의 압력 수단으로 신라의 진성을 침공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554년 9월의 진성전투는 백제측에서의 전과를 부풀리는 등 다소의 과장은 있었겠지만 신라에 대한 보복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29) 이 기사에 대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소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즉 당시 한강하류유역은 신라가 영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려면 신라의 영토를 관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구려가 신라의 일정한 양해를 받아 백제를 공격한 것으로 보기에 어색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전투가 성립하려면 해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주성, 앞 글, 2000, 306쪽). 더구나 당시 고구려가 복제나 돌궐과의 일련의 긴장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군을 동원해서 백제를 공격하는 일은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사는 백제본기 기사가 원전이 되어 고구려본기에 끼워 들어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이강래, 『삼국사기전거론』, 민족사, 1996, 88쪽) 사료의 신빙성은 높다. 그리고 백제는 이미 554년 9월에 진성전투를 벌려 신라에 대한 공세를 퍼서 보복전을 벌린 일이 있을 정도의 군사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30) 관산성 전투 과정을 ① 백제와 가야·왜군의 합동으로 신라를 침입하여 관산성을 함락한 제1단계, ② 백제의 침입을 받고 신라가 전군을 동원하여 전투태세를 준비하는 제2단계, ③ 백제의 성왕이 직접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복병을 발하여 성왕을 살해하는 제3단계, ④ 성왕의 죽음을 계기로 신라가 총력전을 벌여 백제군을 대패시킨 제4단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김갑동, 앞 글, 201~204쪽). 그러나 제2단계와 제3단계는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임으로 양자를 분리해 파악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31) 이는 관산성 전투 때에 백제가 신라에 의해 멸망당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도출된 견해이다(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302~303쪽 ; 이희진, 『가야정치사연구』, 학연문화사, 1998, 188~201쪽). 그에 의하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의해 전사한 3만 명을 백제군 만 명, 왜병 천

당시 가야제국이 백제의 일정한 부용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백제가 신라 정벌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자국의 병력을 가야보다 적게 동원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관산성 전투의 백제 동맹군의 희생자가 2천 9백 6십명이었고(D-②), 또한 성왕대에 고구려와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五谷原전투(529)³²⁾에서 3만 명의 백제군이 동원된 점에 비추어 볼 때 3~4만 명을 상회하는 정도의 군세³³⁾가 아니었을까 한다. 따라서 이 전투는 대부분 백제군이 동원되었으며, 그 주도하에 소수의 대가야와 안라에서 차출된 가야군과 有至臣이 지휘하는 1,000명의 왜군이 각각 동원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백제 연합군이 신라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성왕의 아들 여창은 C-②에서 보듯이 신라 정벌을 반대하는 기로들을 물리치고 신라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성왕 자신이 참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 태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선봉부대를 이끌고 신라 서북변의 방어망을 차례로 공략하면서 옥천지역인 신라의 久陀牽羅³⁴⁾에까지 진출하여 요새를 쌓고 신라군이 웅거하고 있던 전략적 요충 관산성 일대³⁵⁾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참전한 가야군의 행적은 알 수 없지만, 至有臣이 거느린 1,000명의 왜군은 백제 5방 중의 하나인 東方³⁶⁾에 배속되어 東方領 物部 莫奇武連의 지휘를 받고 여창이 거느리는 백제군과 함께 관산성 일대에서 신라군과 격전을 치루고 있었다(D-④). 성왕은 D-⑤에 의거해 볼 때 관산성 전투에 직접 참전한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전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중요 사안을 결정하여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660년 신라가 백제를 정벌하였을 때 태종무열왕은 현재의 상주지역인 今突城³⁷⁾에 머무르면서 김유신이 거느린 백제원정군을 독려했던 사례³⁸⁾가 참고가 된다. 백제가 관산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은 옥천지역이 백제에서 신라의 금성으로 가는 지리적 요충에 있었기 때문이다.³⁹⁾ 관산성

명, 가야군 18,600명 이상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백제군이 왜가야 연합군보다 추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물론 좌평 5명 중 4명이 전사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백제군도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인다.

32)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7년 10월.

33) 신라가 관산성 전투 때에 3만에 가까운 연합군을 죽였다고 서술하는 것은 신라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과장일 것이다. 오히려 이 숫자는 관산성 전투에 참여한 백제 연합군 전체 병력 수일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타난 백제의 많은 규모의 군대 동원 사례를 살펴보면 369년 평양성 전투에서는 3만 명, 529년의 오곡원 전투에는 3만 명, 602년 아막성 전투에서는 4만 명이 각각 동원되었다. 이 숫자는 백제사상 최대로 평가되는데 관산성 전투와 같이 총력전을 펼 경우에도 최소한의 방어 병력을 제외한 가용 병력은 3~4만 명의 범위를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제 말기의 총 군세는 6만 명 정도인(『당서』 권220, 열전 145 동이 백제) 점도 참고가 된다.

34) 久陀牽羅는 충북 영동의 옛 이름인 吉同郡과 경북 안동의 옛 이름인 古陞耶郡과 발음이 비슷하여 영동이나 안동에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관련 사료에는 관산성에서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옥천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5) 여기서 관산성은 옥천지역의 하나의 특정한 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지역 일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6) 『周書』 백제전에 의하면 方領 아래에는 德率의 관등을 가진 郡將 3인이 있으며, 1,200~700명의 군사를 통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東方의 치소는 得安城으로서 충남 은진 일대로 비정된다.

37) 금돌성은 현재의 경북 상주시 모서면 白華山古城으로 비정되고 있다(鄭永鎬, 『金庾信의 百濟攻擊路 研究』 『史學志』 69, 1972).

38) 『삼국사기』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7년 6월 21일.

39) 현재 옥천군의 군서면과 군북면을 흐르는 西華川 주변에는 산봉우리를 따라 고대의 많은 성터가 밀집해 있고, 또 전장터와 관련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다. 서화천 남서쪽에는 東坪城 馬城山城 등이, 동쪽에는 월전리 성이, 북쪽에는 노고산성(할미성), 이백리산성(할배성) 및 환산성이 연해 있다. 또한 이 일대에는 전쟁과 관련

은 470년 삼년산성(현재 보은)이 축조됨으로써 백제의 왕도인 웅진(현재 공주)과 사비지역(현재 부여)을 인후부에서 통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백제와 경계를 이루던 신라의 서부 변경지역의 요충이었다. 당시 백제의 신라 공격로는 지금의 부여(사비도성)→ 황산벌→ 진산→ 마전→ 옥천(관산성)→ 보은(삼년산성)→ 상주→ 경주(금성)로 이어지는 루트로 상정된다.

이에 맞서 軍主 角干 于德과 伊滄 耽知 등이 거느린 신라군은 백제 연합군을 맞이하여 관산성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였으나 초기의 전세는 불리하여 대패하였다. 관산성에 출동한 신라군은 角干 于德이 이끄는 尙州 軍主 소속의 州兵과 중앙에서 급히 파견된 伊滄 耽知의 중앙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주 소속의 州兵과 중앙에서 급파된 신라의 중앙군이 대규모의 총공세를 퍼는 백제 연합군의 예봉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신라군은 개전 초반에 관산성 지역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였는데 반해 백제 연합군은 勝氣를 타고 관산성 일대까지 진격하여 그 전략적 요충지를 하나씩 장악해 나갔다. 그러나 성왕이 관산성의 狗川에서 사로잡힌 것을 보면(D-①) 백제 연합군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관산성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군은 백제 연합군에 대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열세였지만 그런대로 관산성 일부 지역에 남아 증원군이 더 투입되기를 기다리면서 완강한 저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라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라 증원군이 투입되었다. 신라는 新州軍主 金武力이 거느리는 신주 관할의 州兵을 대거 동원하여 열세에 있던 신라군의 힘을 더해주었다. 백제 연합군과 신라 양군이 신라 증원군의 투입으로 관산성 일대에서 한동안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제1단계에는 백제가 가야, 왜 연합군과 함께 신라에 대한 총공세를 퍼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지만 신라군의 저항으로 관산성 일대에서 더 이상의 전진을 하지 못한 채 신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대치전 양상을 보인 시기라 할 수 있다.

제2단계 전쟁은 성왕의 참전과 신라의 총력전에 의한 반격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시기이다. 백제와 신라 양군이 관산성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이 전투의 향방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왕의 참전이었다. 성왕이 오랜 행군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아들 여창을 위로하기 위해 50명의 근위병을 거느리고⁴⁰⁾ 여창의 부대를 향해 위문을 떠난 것이다. 이러한 첩보를 접한 신라군은 성왕을 공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투태세에 임하였다. 『悉發國中兵』(D-⑤)이라 한 것을 보면 백제 성왕을 공격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는 기존의 투입된 병력에 추가하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이 전투에 사활을 걸 정도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이 시기에 백제와 신라의 군사

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어서 옛 격전지를 실감케 해준다. 옥천읍에서 구진배루로 향하는 길목에 ‘진터벌’, ‘염장’, ‘말무덤고개’ 등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군전부락’, ‘군진’이 있으며, 그 너머로는 ‘개산’, ‘갯골’, ‘진벌부락’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용걸 외, 『신라백제 격전지(관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옥천군·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3을 참조할 것.

40) 성왕이 거느린 50명의 근위병 숫자는 당시 신라와 대치하고 있었던 최전방지역임을 고려해 보면 너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를 50이 아니라 5천으로 수정해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현재 어느 기사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다. 50명이라 한다면 성왕 일행이 비교적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백제 관할 지역내에 행차한 것으로 이해된다. 도도가 소규모의 부대를 거느리고 매복에 나선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들이 거의 관산성 일대에 집결되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일을 해낸 것은 三年山郡의 裨將 高干 都刀⁴¹⁾가 거느린 부대에 의해서였다. 그는 옥천에 이웃한 삼년산군 출신의 재지세력으로서 옥천과 보은일대의 지리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인물로 보인다. 도도가 이끄는 신라군은 예상되는 길목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백제 성왕과 근위병이 당도하자 이들을 습격하여 성왕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제2단계 전투에는 여창을 위문차 길 떠난 성왕이 신라군의 매복 작전에 의해 사로잡힘으로서 장차 관산성 전투의 향방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제3단계 전투는 성왕의 죽음을 계기로 신라가 총력전을 벌여 백제군을 대패시키는 시기이다. 신라군에 사로잡힌 성왕은 D-⑥의 기사에 보듯이 都刀에 의해 狗川⁴²⁾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성왕이 신라에 의해 사로잡혀 죽임을 당함으로써 백제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진 반면 신라군의 사기는 충천하였을 것이다. 이제까지 기세당당하게 전세를 주도하였던 백제 연합군은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전쟁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신라군은 백제군에 대해 총공세를 전개하면서 곳곳에서 백제군이 심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구타모라 요새에 주둔하고 있던 여창의 선봉부대는 신라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였고 왜군인 筑紫國造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겨우 몇 명의 부하만을 데리고 탈출하였다. 이러한 신라군의 총공세로 인해 백제 연합군은 큰 패배를 당하였다. D-②와 ③은 신라계통의 사료에 의거한 것인데 백제 연합군의 피해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백제 연합군이 이 전투에서 좌평 4명과 2만 9천 6백 명의 군사들을 상실당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은 다소 신라측 입장에서 전과를 부풀리는 듯한 면이 있지만⁴³⁾ 성왕은 물론 좌평 5명⁴⁴⁾ 중 4명, 그리고 3만에 가까운 사졸들이 패사하였으니 가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로서 위덕왕을 비롯한 주전과에 의해 강행된 관산성 전투는 참패로 끝났다.

IV. 관산성 전투의 영향

41) 『일본서기』 흥명기 15년조에는 성왕을 사로잡아 죽인 사람을 佐知村에 거주하던 飼馬奴 苦都(일명 谷智)라 하였는데 都刀나 苦都는 음이 비슷하여 동일인으로 보인다. 都刀는 아마 軍馬를 대대적으로 사육하던 삼년산군 관할 좌지촌의 유력한 재지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성왕을 사로잡은 공로로 인해 外位の 두번째로 높은 관등인 高干을 수여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42) 狗川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구진베루와 갯골의 두 가지 설이 있다. 구진베루는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군전부락을 감싸고도는 협곡을 말하는데(정영호, 「김유신의 백제공격로 연구」 『사학지』 6, 1976, 55~57쪽; 성주탁, 「신라 삼년산성 연구」 『백제연구』 7, 1976, 42쪽; 관성동학회, 『옥천향지』, 1984, 375~377쪽), 이곳은 바로 밑에 서화천이 굽이쳐 흐르고 있고, 위에는 남북 1km 가량 길게 뻗어있는 능선 중앙 부분의 높이가 30m, 경사 90도 가량의 험준한 낭떠러지로 되어 있다. 반면 갯골은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의 갯골을 말하는데(관성동학회, 앞 글, 377~378쪽), 갯골은 노고산성(할미성)의 북쪽 밑에 위치한 곳으로 구천과 같은 명칭을 갖고 있다. 노고성은 동편 환산성의 한 보루성인 이백리성(할배성)과 동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신라와 백제 양군이 두 성에 각기 주둔하여 싸웠다는 전설이 있다. 성 남쪽에는 구진베루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환산성 바로 밑의 골짜기 이름이 勝地골인데 이곳은 신라군이 기어오를 때 마침 이곳에 도착한 성왕이 이 광경을 보고 배후를 급습하여 대승을 거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 성왕은 태자 여창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여 환산성 서편의 노고산성에 오르기 위해 한 밤에 이백리에 있는 갯골에 이르렀을 때 신라의 비장 都刀의 기습을 받아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전한다.

43) 이는 신라측에서 일방적으로 전과를 과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3만이라는 피해 숫자는 백제 연합군의 참전한 실제 전투 병력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주) 33을 참조할 것.

44) 『周書』 권49 열전 41, 백제.

554년 백제의 관산성 전투 패배는 삼국항쟁사에서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이 전투의 패배로 인해 성왕이 국왕 중심의 정치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해 온 한강고토수복은⁴⁵⁾ 성왕 자신이 신라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써 무위로 끝나게 되었다. 한성고토의 회복을 통해 근초고왕·근구수왕대의 영광을 재현해 보려는 성왕의 염원은 허사로 돌아 간 것이다. 그렇지만 관산성 전투는 나름대로 삼국 항쟁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 전투는 백제와 신라간에 벌어진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양국이 국운을 건 일대 대회전이었던 점이다. 백제는 성왕뿐 아니라 그 아들 여창, 여러 좌평들이 대거 참여한 총력전이었고, 3만 명에 가까운 백제 연합군 병사들이 이 전투에서 희생을 당한 것에 미루어 보면 거의 백제 최소한의 자체 수비병을 제외한 실제 가용한 병력을 동원한 총력전의 양상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맞선 신라도 ‘悉發國中兵’(D-⑤)이라 표현하였듯이 州兵인 尙州와 新州, 그리고 중앙의 정예부대를 포함한 실제 가용한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전개하였으며 여기에 耽知,⁴⁶⁾ 金武力 등 551년 북진때 큰 전공을 세우고 전투 경험이 많은 이찬급의 진골귀족들을 총동원하여 백제의 침공을 저지하였다.

한편 이 전투에는 백제와 신라 양국만이 참여한 전투가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있는 정치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동북아시아의 일대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전개된 것이다. 백제뿐 아니라 그 부용 관계에 있던 대가야와 安羅를 중심으로 한 가야세력, 그리고 일본열도의 왜가 백제측에 참여하였다. 왜가 참여하게 된 것은 백제의 지속적인 청병 외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고구려는 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사료 C-①과 D-④에서 보듯이 신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와 가야제국에 대해서는 신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들 국가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정치체들이 불력을 형성하면서 직접적으로 대결을 벌인 일은 4세기말~5세기초에 일어난 광개토왕대의 남정 이래의 일대 會戰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제라동맹체제가 와해되고 양국은 멸망기까지 적대관계로 돌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라동맹은 433년 고구려의 남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백제측의 제안으로 양국간에 동맹관계가 성립된 것이다.⁴⁷⁾ 450년 신라가 悉直에서 고구려 변장을 살해한 사건⁴⁸⁾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동맹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서부터 464년 이후 고구려는 신라를 공격하는 적대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5세기 후반에는 고구려가 백제를 4회 침공한 반면, 신라는 8회나 공격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군사동맹체제로 발전을 시켜 공동으로 고구려의 남진에 대처하는 양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551년 한강유역을 수복

45) 양기석, 「백제 성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 1991, 77~103쪽.

46) 耽知는 진흥왕 12년(551)에 거칠부 등과 함께 고구려로부터 죽령 이북의 10개 군을 빼앗았을 때에 참여한 장군으로 그때의 관등이 逆滄이었다. 「단양신라적성비」에 보이는 豆彌知를 탐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1979, 13쪽). 그리고 金武力은 삼국통일의 원훈인 김유신 장군의 조부인데 「단양신라적성비」에 보이듯이 탐지와 함께 북진에 참여한 후 한강유역을 다스리는 신주 군주에 보임되었던 인물이다.

47) 『삼국사기』 백제본기 비유왕 7년 7월·동 8년 2월·9월·10월.

48) 『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34년 7월.

한 북진 이후부터 신라는 고구려와 밀약을 맺어 한강유역 확보에 대한 욕심을 보임으로써 백제와 신라 양국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게 되었다. 553년 백제가 이미 수복한 한강유역지배에 대한 불안정한 상태를 간파하고 한강유역을 탈취해 버리자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게 되었다. 이에 두나라 왕실간의 통혼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랬던 백제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자(A-②) 백제는 신라에 대한 유화책을 버리고 신라 공격이라는 강경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백제는 삼국 관계에서 고립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부용관계에 있거나 친연성이 있는 가야세력과 왜를 끌어들이어 신라 정벌군을 결성하고 554년 7월에 신라 공격에 나선 것이다. 결국 백제는 관산성 패전으로 그 멸망기까지 신라와는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제라동맹체제도 자연히 붕괴되고 만 것이다. 이런 면에서 관산성 전투는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기라 할 수 있다.

셋째 신라는 한강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강유역이 갖는 지정학적 조건인 인적 물적인 자원의 증가와 함께 중국과의 외교에 독자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게 되었다. 반면 백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한동안 삼국관계에서 힘의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신라는 이 전투의 승리로 한강유역은 물론 함경남도 안변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게 되어 건국 이래 최대의 판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신라는 관산성 전투 이후 比斯伐에 完山州 설치(555), 북한산 순행(555), 比列忽州 설치(556), 國原小京의 설치(557), 북한산주 설치 등을 통해 한강유역에 대한 안정적 지배를 관철하고 나아가 대중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여⁴⁹⁾ 동아시아에서의 신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 행해지게 되었다.

넷째 가야세력의 멸망을 촉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550년대 가야세력은 북쪽의 대가야와 남쪽의 안라의 남북이원체제 상태로 되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백제에 일정한 부용관계에 놓여 있었다.⁵⁰⁾ 가야세력이 관산성 전투에 참여하여 참패함으로써 신라의 가야 진출이 더욱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신라는 530년대에 啄己呑이나 금관가야와 같은 가야소국들을 병탄하였고,⁵¹⁾ 관산성 전투 이후에는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를 끝내고 가야제국에 대한 병합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더구나 관산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백제의 퇴축을 이용하여 가야제국 병합을 촉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562년 대가야의 멸망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산성 전투의 결과는 삼국 항쟁사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면 관산성 전투를 계기로 하여 백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관산성 패전 직후의 상황을 기록한 다음의 『일본서기』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F-① 백제 餘昌이 여러 신하들에게 “소자는 이제 돌아가신 부왕을 받들기 위하여 出家하

49) 신라는 진흥왕 25년(564) 백제에 앞서 북제와 처음으로 교섭에 나섰는데(『북제서』 권7, 제기7, 武威 河清 3년 12월), 이어 565년에는 북제로부터 ‘新羅國王金眞興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이란 책봉을 받았다. 진흥왕의 책봉 사실은 삼국 항쟁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삼국의 대중교섭은 거의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신라의 중국왕조와의 첫 교섭은 앞으로 삼국의 항쟁과 관련하여 대중교섭에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50)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251쪽.

51)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19년 및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2년 하4월의 성왕의 회고담 참조.

여 修道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다. 여러 신하와 백성들이 “임금[君王]께서 출가하여 수도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왕명을 받들겠습니다. 슬프도다. 전신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여 후에 큰 근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누구의 잘못입니까? 백제의 나라는 고구려와 신라가 다투어서 멸망시키려 하는 바입니다. 처음 나라를 세운 이후 이 나라의 종묘의 제사를 어떤 나라에 시키려는 것입니까? 모름지기 도리는 왕명을 따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耆老의 말을 들었다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바라건대 앞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세를 떠나는 수고로움은 하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것을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나라 백성들을 출가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여창이 “좋다”고 대답하고는 곧 나아가 신하들에게 도모하도록 하였다. 신하들은 마침내 상의하여 100명을 출가시키고 幡蓋를 많이 만들어 여러 가지 공덕을 행하도록 하였다.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6년(555) 8월)

② 백제 왕자 여창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가 위덕왕이다. (『같은책』 흠명기 18년(557) 춘 3월)

위 F-①기사는 여창이 관산성 전투의 패전 직후 부왕인 성왕에 대한 참담한 비보를 접하고서 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出家修道’를 하겠다는 결심을 밝히자 이에 ‘耆老’를 포함한 제신과 백성들이 관산성 전투의 패전에 대해 통렬히 책망한 ‘기로’들의 말을 떠올리면서 여창의 출가를 포기하도록 간곡히 만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 기사를 보면 위덕왕의 즉위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일본서기』 관련 기사(F-①)를 신뢰하여 3년간의 공위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었지만⁵²⁾ 1995년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百濟昌王銘石造舍利龕」 명문에 의거해 볼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창[위덕왕]을 비롯한 주전파에 의해 강행된 관산성 전투는 백제의 참패로 끝났다. 이 전투에서 성왕은 물론 좌평 5명⁵³⁾ 중 4명, 그리고 3만에 가까운 사졸들이 패사하였다. 이 전쟁을 주도한 주전파는 물론 ‘기로’세력이 중심이 된 주화파 모두 일시에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위덕왕이 즉위초에 ‘출가수도’의 결행을 선언할 정도로 향후 정국 운영에 큰 파문과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로 인해 위덕왕 즉위초의 정치 상황은 ‘기로’로 지칭되는 주화파 귀족세력에 의해 한동안 정국 운영이 주도되는 결과가 되었다. 주화파 귀족세력들이 ‘기로’들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위덕왕에 대해 패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시 한번 추궁했던 사실(E-①)에서 지배체제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와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성왕대 이래 추진되고 있었던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거론되었을 것이다. 새로 즉위한 위덕왕은 주전파의 앞장을 섰던 관계로 그 자신의 정치 사회적 권위 확립에 큰

52) 이에 대해 『일본서기』의 관련 기록이 관산성 전투를 전후로 한 백제의 사정을 비교적 상세히 전하고 있어서 관산성 패전과 위덕왕의 즉위에 따른 지배세력간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덕왕의 즉위에는 3년간의 空位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81쪽). 최근에는 이 견해를 보다 구체화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백제의 최고 귀족회의체인 政事巖회의에서 위덕왕의 관산성 전투 패전에 따른 책임 문제를 거론하여 위덕왕의 즉위 승인을 부결하였다가 위덕왕의 공식 사과를 받은 557년 3월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왕위에 즉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주성, 앞 글, 2000, 315~316쪽).

53) 『周書』 권49 열전 41, 백제.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사료 ‘출가수도’의 결단을 밝힐 정도로 그의 권력기반도 크게 동요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성왕대의 정치 개혁을 통해 갖추어진 체계화된 정치 체제 운영으로 인해 성왕의 관산성 패사라는 큰 혼란을 단기간에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⁵⁴⁾ 이후 사비시대 백제사 전개에 있어서 왕권과 귀족 세력간의 길항관계를 제도적 틀 속에서 유지하면서 대성귀족의 탄생⁵⁵⁾을 가져올 정도의 대내적인 변화상이 나타나게 된다.

V. 맺 음 말

이 글은 554년 백제와 신라 사이에 벌어진 관산성 전투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게 된 단초의 일을 553년 신라에 의한 한강유역 탈취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제 성왕은 신라에 대한 유화책과 동시에 강경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았다. 즉 성왕은 신라가 한강하류유역을 점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녀를 신라에 시집보내는 유화책을 구사하면서도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당시 백제에 부용관계에 있었던 가야는 물론 왜에 5차례나 군사 원조를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 성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비협조로 인해 신라와의 동맹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의 혼인 정책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백제 조정 내에서는 신라에 대한 전면 공격을 놓고 지배세력 간에 큰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성왕의 아들 여창이 주장하는 강경론자들은 ‘耆老’로 표현된 세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라 정벌을 결정하였다. 戰況의 전개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단계는 백제의 선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백제연합군의 초반 우세속에 관산성 일대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진 시기, 제2단계는 성왕의 참전과 신라의 총력전에 의한 반격이 이루어진 시기, 제3단계는 성왕의 죽음을 계기로 신라의 대반격이 가해짐으로써 백제 연합군이 패퇴한 시기로 각각 구분하였다.

백제의 관산성 전투 패배는 대외적으로 볼 때 이후 삼국 항쟁사에서 여러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전쟁은 백제와 신라간의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두나라가 국운을 건 일대 대회전이라는 점, 기존의 제라동맹체제가 와해되고 두나라가 백제 멸망기까지 적대관계로 돌변하게 되었다는 점, 신라가 한강하류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야제국의 멸망을 촉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국의 역관계상 큰 변화를 찾을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위덕왕 즉위초에 일어난 혼란을 극복하고 이후 사비시대 백제사 전개에서 나타난 왕권과 대성귀족들 간의 길항관계를 제도적 틀 속에서 유지하는 대성

54) 김영심, 앞 글, 268쪽.

55) 백제의 대성귀족들은 한성을 기반으로 하는 진씨, 해씨 이외에 금강유역에 기반을 둔 사씨, 백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웅진시대까지만 해도 각자의 사적인 세력기반을 토대로 성장하였다면 사비시대 이후의 대성귀족들은 왕권과의 관련하여 국가 시스템 테두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8쪽을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밝혔다.